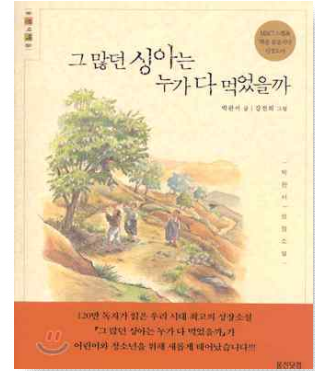


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



★ 핵심 주제

- 생명력
- 자연
- 가족 관계
-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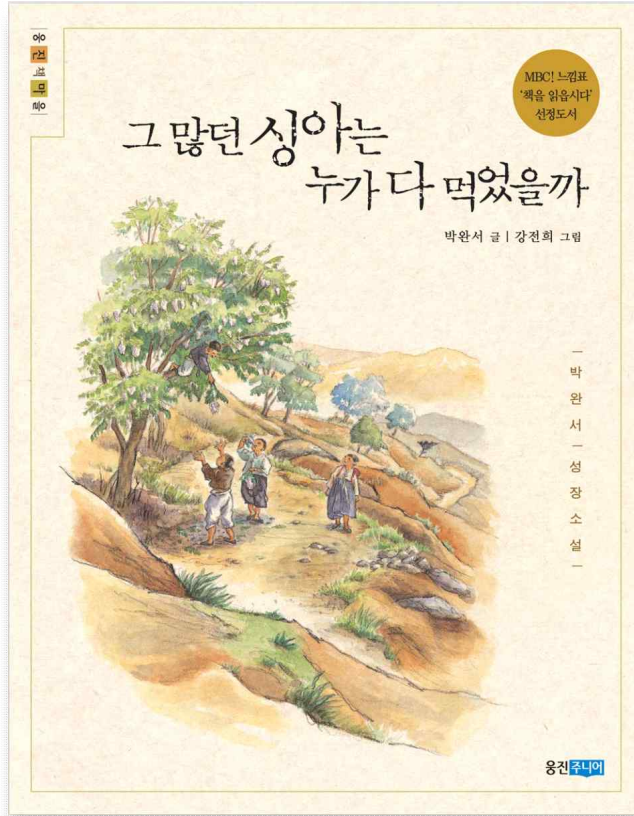
★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

	5-6학년군
성취 기준	<p>[6국02-02]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.</p> <p>[6국03-06]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.</p> <p>[6국05-05]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</p> <p>[6국04-03]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.</p> <p>[6사04-03]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의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.</p> <p>[6사04-04] 광복을 위해 힘쓴 인물의 활동을 파악하고,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.</p> <p>[6사04-05]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,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.</p> <p>[6사04-06] 6·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, 그 피해상과 영향을 탐구한다.</p>

★ 온 책 읽기 활동

🌱 읽기 전	🌿 읽기 중		🍊 읽기 후
활동 주제	소제목	활동 주제	활동 주제
• 제목과 표지로 내용 예상하기	1. 야성의 시기 2. 아득한 서울~3. 문 밖에서 4. 동무 없는 아이 5. 괴불마당 집 6. 할아버지와 할머니 7. 오빠와 엄마~8. 고향의 봄 9. 패대기쳐진 문패~ 11. 그 전날 밤의 평화 12. 찬란한 예감	• 등장인물 분석하기 • 낱말의 뜻 짐작하며 읽기 •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•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 •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• 8·15 광복 상황을 일기로 표현하기 • 서로 다른 주장 알아보기 •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	• 책의 내용 정리하기


★ 책을 읽기 전, 책의 표지와 제목을 살펴봅시다.



(1) '싱아'가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(2) 표지 그림과 제목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자유롭게 써 봅시다.

(3) 위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.

 읽기 중 활동	1. 야성의 시기	학년 반 번	
	등장인물 분석하기	이름	

★ 책을 읽고,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.

(1) 엄마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빠를 서울의 상업학교에 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?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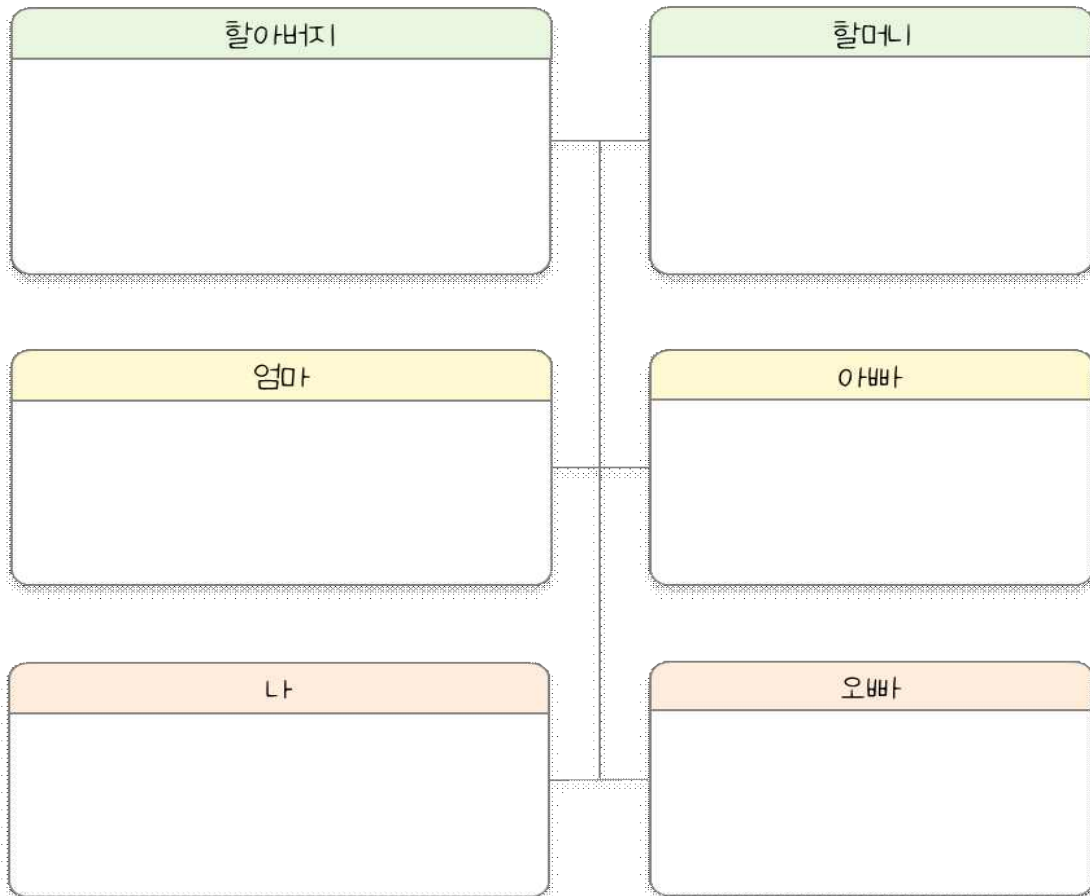
(2) ‘나’는 왜 시골에 살면서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나요?


.....

(3) 할아버지의 서당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.....

★ ‘나’와 ‘나의 가족’들의 정보를 책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.



 읽기 중 활동	2. 아득한 서울~3. 문 밖에서	학년 반 번
	날말의 뜻 짐작하며 읽기	이름 <input style="width: 100px;" type="text"/>

★ 책을 읽고,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.

(1) ‘나’는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왜 눈물을 펑펑펑 흘렸을까요?

(2) 엄마가 물장수를 존경하고 부러워한 까닭은 무엇인가요?

★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다시 한 번 글을 읽어 봅시다.

달갑잖은 얼굴로 말했다.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속 다르고 걸 다르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. 사직동 친척은 펄쩍 뛰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치원까지 나온 아이 중에서도 떨어진 애가 **수두룩하다**고 나를 치켜세워 주었다.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, 그까짓 거 떨어지면 공부할 팔자가 아니거나 하고 시골로 내려보내면 짐도 가벼워지고 여한도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보냈는데도 붙었다고 또 한 번 속 들여다보는 거짓말을 했다. 그 **법석**을 떨고도 마치 떨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낸 듯한 표정을 짓는 엄마를 나는 **착잡한** 마음으로 바라보았다. -58쪽-


(1) 다음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. 빈칸을 채워 봅시다.

-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의 () 상황을 살펴본다.
- 해당 낱말의 뜻과 ()하거나 ()인 낱말을 대신 넣어 본다.
-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본다.

(2)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봅시다.

	다른 낱말로 바꾸어 써 보기	짐작한 뜻
달갑잖다		
수두룩하다		
법석		
착잡하다		

(3) 낱말의 뜻이 내가 짐작한 뜻과 맞는지 국어사전을 찾아봅시다.


 읽기 중 활동	4. 동무 없는 아이	학년 반 번
	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	이름 <input style="width: 100px;" type="text"/>

★ 책을 읽고,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.

(1) 학교에서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 쓰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?

(2) ‘나’는 왜 매일 산을 넘어 학교에 다니면서도 진짜 산과 진짜 봄에 갈등을 느꼈을까요?

★ 책 74쪽~79쪽을 다시 읽고, 글을 요약해 봅시다.

 서울과 시골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.

서울 인왕산 자락

쭉 하나 돌아나지 않고, 바위가 부서진 것처럼 메마른 흙


시골 뒷동산

★ 요약하기



(1) 위에서 요약한 내용으로 보아 ‘나’는 서울과 시골 중 어느 곳을 더 좋아하나요?

(2) 이 책의 제목이 「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」인 까닭은 무엇일까요?

 읽기 중 활동	5. 괴불마당 집	학년 반 번	
	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	이름	

★ 책을 읽고,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.

멀리서 그 번쩍거리는 칼빛만 보아도 오금이 저려 죄 없이도 뺨소니칠 궁리부터 하게 되던 순사들, 쇠사슬을 발목에 찬 죄수들을 짐승처럼 잔혹하게 다루던 간수들, 살기와 오기가 충천하던 일본 병정들, 가정 방문 와서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 어머니를 야만인 보듯 경멸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일본인 선생 등등, 유년기와 소녀기의 의식을 짓누르던 일제의 지긋지긋한 악몽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. -118쪽-

학교에서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내 또래는 아주 드물었다. 나는 그런 드문 아이 중의 하나였지만, 그걸 공지로 여기기엔 나는 너무 철이 없었다. -123쪽-


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황국신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, 그건 뭔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. -125쪽-

창씨개명령은 그보다 앞서 내렸는데 살기가 각박해지면서 그 강제성도 심해져 더욱 시국을 흥흥하게 했다. -126쪽-

(1) 일제가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?

(2) 여러분이 만일 당시를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.

(3) 일제에 맞서 우리 나라의 독립 운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?


 6학년 사회 교과서 131쪽을 참고하세요.

- 신채호 :
- 조선어 학회 :
- 한용운, 이육사 등의 문인들 :

(4)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라면 독립 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?

.....

.....

 읽기 중 활동	7. 오빠와 엄마~ . 고향의 봄	학년 반 번
	8·15 광복 상황을 일기로 표현하기	이름

★ 일제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봅시다.

여고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시국은 이미 일제 말기였다. 정규 수업을 며칠 받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군수품 산업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오전에 두 시간 수업을 받고 나면 교실이 곧장 공장으로 변했다. -155쪽-






대포알을 만든다고 집집의 낫그릇까지 다 거둬 갈 때였다. 궁핍이 극도에 달했고 혹독하게 추운 날 술방울을 줍는 일에 동원되어 신촌 어딘가의 산을 해매다가 언 밤을 덜덜 떨며 먹은 적도 있다. (156쪽) -156쪽-

그러나 시골에선 조혼이 유행이었다.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덜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, 아들 가진 집에선 징용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 놓고 싶어 했으니까. -160쪽-

(1)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참전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해 봅시다.

(2)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날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

★ 광복 당시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, 광복 상황을 상상하여 일기로 써 봅시다.

1945년 8월 15일	    

읽기 중 활동

9. 패대기쳐진 문패~11. 그 전날 밤의 평화

학년 반 번

8·15 광복 상황을 일기로 표현하기

이름

★ 책의 내용을 통해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.

개성에 미군이 들어온 건 삼팔선을 잘못 그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느닷없이 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주둔했다. -186쪽-

바깥세상이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아무개 절대지지, 누구누구 절대반대라는 정치적 구호와 시위가 매일같이 교차되는 데 발을 맞춰... -205쪽-

마침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일 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. 좌익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절을 신생독립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. -224쪽-

(1)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나열해 봅시다.

💡 6학년 사회 교과서 137~140쪽을 참고하세요.

- ㉠ 미소 공동 위원회의 합의 실패 → 한국의 문제를 국제 연합(UN)으로 넘김
- ㉡ 남한만의 단독선거 →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출
- ㉢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 실시 결정
- ㉣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

() - () - () - (㉣)

★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살펴보고, 내 생각을 써 봅시다.

💡 6학년 사회 교과서 141쪽을 참고하세요.



이승만(1875~1965)

이제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걸되지 않으니,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,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. - 서울신문, 1946년 6월 4일



김구(1876~1949)

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 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백 년 계획을 그르칠 사람이 있으랴. -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, 1948년 2월 10일


(1) 이승만, 김구의 글에서 각자 주장하는 내용을 써 봅시다.

· 이승만 :

· 김 구 :

(2) 두 사람의 주장을 보고 내 생각을 써 봅시다.

.....

 읽기 중 활동	12. 찬란한 예감	학년 반 번
	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	이름

★ 책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.

(1) 6·25 전쟁의 과정을 생각하며 글을 크게 나누어 봅시다.

쪽	내 용
241~249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민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도함. ·
249~257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민군들이 마을로 들어오고, 오빠는 사상범들과 함께 돌아옴. · 인민군들이 숙부네에서 숙식을 해결함. · 오빠가 인민군으로 끌려감.
257~263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·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군이 다시 돌아옴. ·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함. (1·4 후퇴) ·

(2)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‘12. 찬란한 예감’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.

 읽기 후 활동

책의 내용 정리하기

학년 반 번

이름

★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어서 써 봅시다.

그래,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.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.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라.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.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.

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.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. 조금밖에 없는 식량도 걱정이 안 됐다. 다닥다닥 붙은 빈 집들이 식량으로 보였다. 집집마다 설마 밀가루 몇 줌, 보리쌀 한두 뒷막쯤 없을라고. 나는 벌써 빈 짐을 털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았다. -282쪽-

(1)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
.....

(2) ‘나’는 왜 조금밖에 없는 식량이 걱정되지 않았나요?

.....

(3) 6·25 전쟁의 과정을 참고하여, ‘나’와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예상해 봅시다.

.....

(4) 위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봅시다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